RICA 1st Exhibition

바
바람
바람이
람이
불어
불어오
불어오는
어오는곳,
대구
구

김민제

박건

권민주

2021

11.22-12.06

범어아트스트리트
오픈갤러리

박성호

박소연

박소현

Performance
11.19. 2:00pm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야외

박시은

백승현

이승희

송진경

장샤론

윤서희

최혜원

김미련

Colorful DAEGU 대구문화재단

주최 온아트
주관 이상춘현대미술학교
본 사업은 2021 대구문화재단 창제활동지원사업입니다

9번출구쪽
제니스상가 방향

7번출구쪽
지하철 방향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스튜디오10번

15

14

12 Zip (small ver.)

2021_single channel video 3'03", mdf, 각재_가변설치

이승희

이승희 작가는 개념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표현한다. '집'은 삶을 구성하는 최소의 공간 단위로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집'의 개념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많은 의미에 변화가 있었다. 현 사회에서 '집'은 하나의 큰 자산으로 치부되며 '영끌', '빚투', '부동산 블루' 등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왔다. 이처럼 변화된 '집'의 의미를 통해 거대 시장 경제 구조 이면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14 막혀버린 샘

2021_양변기에 물감 찌꺼기

박성호

대구의 미술은 변화가 없다. 대구는 한 번도 미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 적이 없다. 그래서 뒤상의 변기를 그대로 전시 한다 한들 대구에서는 여전히 새롭다. 아니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미술과는 매우 거리가 있을 테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고상하고 심미적인 미술과는 매우 다를 테니까. 시대가 변했고 미술도 변했다. 하지만 대구의 미술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변기를 전시함으로써 대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15 Jenga : Leaving or Staying

2021_혼합재료_750x750x2550mm

김민제

나무 블록을 16층으로 쌓는다. 대구를 떠나간, 떠나려는 또는 남아있는 이유가 적힌 나무 블록 세 개씩 층마다 위치하고, 위층과 아래층의 나무 블록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한다. 게임 참여자는 각자 차례로 나무 블록 하나씩 랜덤으로 선택해 빼는데, 나무 블록 탑이 쓰러지면 게임이 종료되고 탑을 쓰러뜨린 마지막 사람이 패배한다.

게임을 진행할수록 젠가는 위태로워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게임을 진행할 텐가, 멈출 텐가.
순리를 거스를 텐가, 따를 텐가.

10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한 여성 미술가의 수는?

2021_종이에 프린트_297x210mm,420x297mm(50ea)
2021_동대구역 지하 전광판_1500x1000mm

박소현

게릴라 걸즈의 「HOW MANY WOMEN HAD ONE-PERSON EXHIBITIONS AT NYC MUSEUMS LAST YEAR?」을 차용하여 대구미술관에서 진행한 여성 미술가 개인전 횟수를 조사했는데, 2015년에 리부트된 여러 페미니즘 논의 이후 2016년부터 2021년 사이로 한정했다. 연간 평균 5번 정도 개인전을 여는 대구미술관은 6년간 단 3번의 여성 개인전이 있었다. 예술계는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로 여성의 자리는 축소되어 있다.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현재 미술 제도를 비판하고 여성 미술가의 입지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1-1 도시를 허하라

2021_2채널영상_523mmx929.8mmx모니터(2ea)

김미련 / 김정희 / 김유석

11-2 다른 몸, 다른 언어 : 도시를 허하라 (수화)

2021_사진플라쥬(디지털칼라프린트)_297mmx210mm(13ea)

김미련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이들이 만나 서로의 '몸말'과 '몸짓', '몸그림'을 '빛(영상)'으로 엮는다.

몸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상상하는 도시는 그들의 '몸'이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화폭'이 되어 펼쳐진다. 장애인에게 일상성과 접근성이 허락되지 않는 도시의 문턱 높은 건물과 도시가 가지는 폐쇄성과 차별성은 다양한 미디어 기법으로 '몸'에 다시 입혀진다. 전유되고 전용된 이미지와 텍스트, 형상을 통해 '도시'는 그들의 '몸'에서 '재탈환'된다.

13 크리틱

2021_폼보드,시트_529x377mm(4ea)

박성호 / 박소현 / 백승현 / 장샤론

현대미술 작가, 작품 및 미술 제도를 중심으로 4인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8 Colorful DAEGU ?

2021_합판,각재,아크릴물감,스티커_가변설치

박소연

지역마다 고유의 특징이 사라지고 있지만 '상징'은 있다. 대구는 'colorful DAEGU'로 다양성, 포용, 활력, 열정 그리고 발전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로고의 이미지는 색마다 의미가 존재 하는데 파랑은 경제도시, 연두는 녹색도시, 빨강은 역동적인 도시, 보라는 문화예술의 도시, 노랑은 복지 도시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대구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와 닿는지 의문이 든다. 대구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이 충족됐는지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5가지 색과 더불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흰색까지 총 6색을 선택하게 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대구'의 정체성을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9 안으로 들어오기, 밖으로 나가기

2021_현수막천에 인쇄_2000x2000mm

장샤론

이동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곳이 너무 싫거나, 저곳이 좋아보여서 이동하는 것. 나는 이곳이 싫거나 구성원에게 배척당해 하는 이동을 '떠밀려진 이동'이라고 생각했고, 저곳에 가고 싶어서 하는 이동을 '자발적 이동'이라 생각했다.

이 작업은 떠밀려진 이동과 자발적 이동을 나누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서로의 욕망에 따라 당겨지기도 하고 밀려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고 숨겨진 이동의 모양을 드러내고 싶었다. 따라서 나는 대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사용한 말을 발췌했다.

우리는 '안'으로 이동하길 꿈꾸고 '밖'으로 내쳐지고 싶지 않아 한다. 내가 있는 곳을 '밖'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한다. 그 절망은 '안'이 어딘지를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이 작업의 과정 중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인정과 구절을 적은 문장은 그 경험으로부터 나왔다.

6 Voice

2021_single channel video_10'44"

박건

고향을 떠나 낯선 타인의 땅에 발을 들인 그들은 무언가 꿈꾸고 이루기 위해 집(Home)을 벗어난다. 길면 수년, 짧다면 몇 개월을 안정적인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노-홈"에 소속된다. 언어와 환경, 그리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차별과 고립감은 그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상기시켜준다. 낯선 한국 땅 위에서 그들은 차별과 억압, 임금체불에 지쳐있다.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코리안 드림은 환상일 뿐이었나.

나는 산업의 도시 구미에서 자라서 이주노동자들은 내게 비교적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눈에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았다. 또 이주노동자의 수가 매년 늘어나며, 2030세대는 자신의 일자리가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나는 그들 또한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자 한다. 사회적 소수에 위치한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동시에 그들의 생애사를 알고 싶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눈을 마주 보고 들어보길 바란다.

7 포용과 배타

2021_잉크젯 프린트,천에 실크스크린,각재_가변설치

송진경

현재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인근에는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원주민과 신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은 종교 배척의 차원을 넘어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권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였다. 다양한 기술과 매체의 발전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늘날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문화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관객에게 다른 문화권에 대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은 자신이 받아들인 정도를 스스로 깨닫고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

더 이상 '미(美)'에 국한되거나 삶과 동떨어진 미술이 아니라 기존의 주류 자본주의 문화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미술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미술이지 않을까?

설문 결과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시민은 미술이 비판성과 사회성을 띠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미술의 그러한 시대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구·경북 미술계에는 기존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미술이 부족한 것 같다.

리카는 현장 참여형 전시 담론에 의거해 기존의 시각 중심의 심미적, 형식적 미술 작품들과 현대미술의 개념 중심의 비판적, 사회적 미술 작품들의 비교를 통해 어디까지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이를 통해 현대미술의 범주와 역할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보고 대안적 문화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F	E	D	C	B	A

◎모더니즘

A. 잭슨 폴록, Red Composition, 1946
C. 박서보, 묘법 No.150906, 2015
E. 에두아르 마네,
Une botte d'asperges, 1880

◎현대미술

B.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무제
(Portrait of Ross in L.A), 1991
D. 성능경, 신문 읽기 퍼포먼스, 1976
F. 한스 하케, 마네 프로젝트74, 1974

5 2021-L.A Project

2021_4개의 바인더,4개의 현수막, single channel video

규라 김 / 권민주 / 김민제 / 박건 / 박성호 박소현 / 백승현 / 윤서희 / 최혜원

L.A (Libetate Artt) Project는 대구권의 4개 미술대학(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의 역사를 -교수 유형, 교과 과정 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어떻게 현대미술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대구시가 21세기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場)을 촉발하는 아티스트 콜렉티브(Artist Collective) 프로젝트이다.

1 전시 서문

2021_현수막_2600x500mm(4ea)

박성호 / 백승현 / 송진경 / 윤서희

4인의 각자 다른 시각으로 본 리카 제1회 기획전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구》 서문.

2 이상춘 아카이브

대구 출신의 혁명적인 전위미술가 이상춘은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해 투신하다 요절한 다원예술가이자 정치적 아방가르드 예술가였다.

이상춘의 예술세계가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이 지배했던 일제강점기에 아방가르드 예술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근대미술의 지평을 확대하고 또한 한국 현대미술의 계보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아카이브

2021_single channel video

박성호 / 박소연 / 박시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포착한다.

4-1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들은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021_종이에 프린트,각재_가변설치

4-2 대구경북 지역의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이란?

2021_스티커,종이에 프린트,폼보드_2000x3000mm

4-3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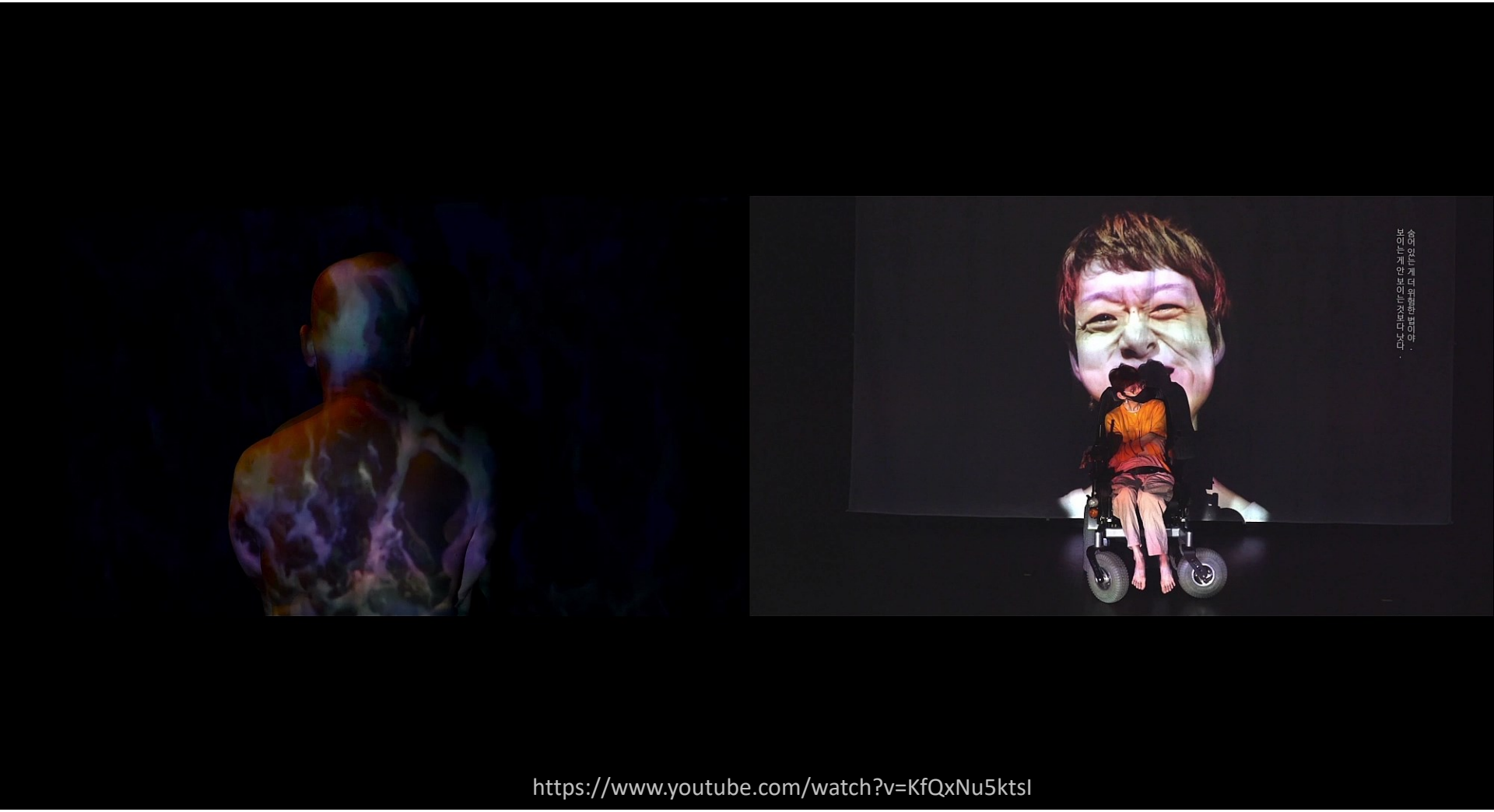
2021_대형이젤,캔버스,펜_가변설치

박소연 / 박소현 / 박시은 / 백승현

21세기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들은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날 미술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동시대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를 허하라 Allow the City _ 13'22''_ 2 채널영상_ 52.30cmx92.98cmx모니터2대 _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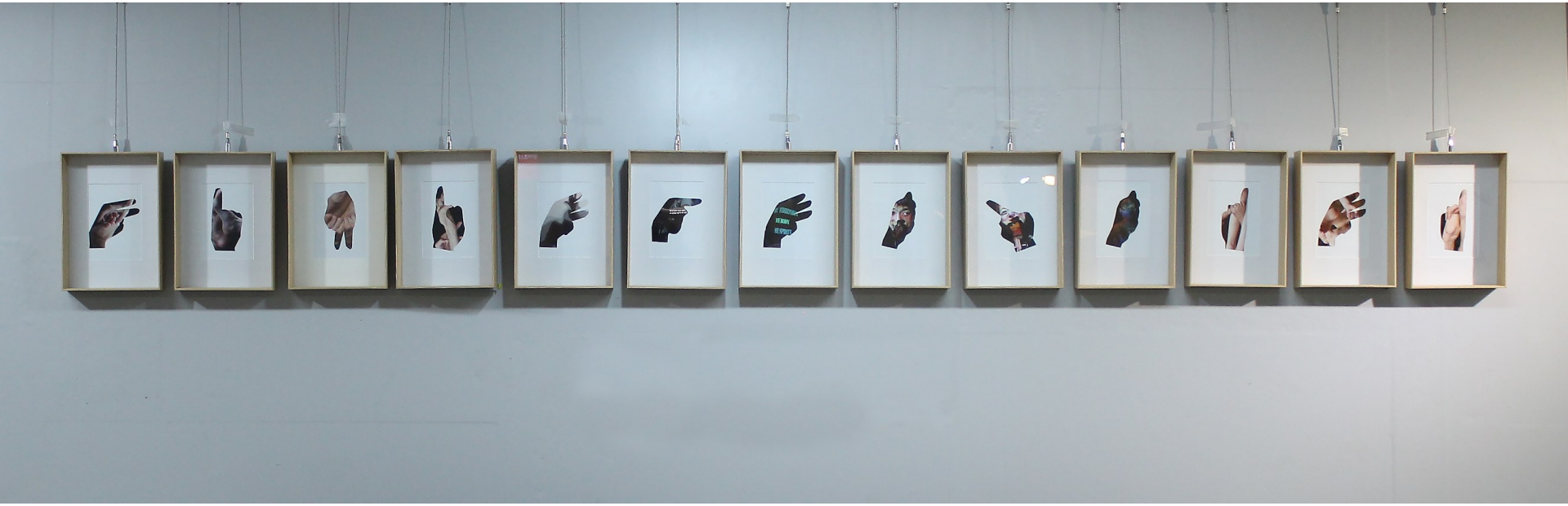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KfQxNu5ktsI

도시를 허하라 Allow the City _ 13'22''_ 2 채널영상_ 52.30cmx92.98cmx모니터2대 _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KfQxNu5ktsI

도시를 허하라 Allow the City _ 13'22''_ 2 채널영상_ 52.30cmx92.98cmx모니터2대 _ 2021



다른 몸, 다른 언어:도시를 허하라(수화)_2021_사진꼴라쥬_21cmx29.7cmx13개